

강인성에 대한 국내 간호논문 분석

김 영 옥*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강인성(hardiness)은 스트레스 저항적 특성을 갖는 대표적인 심리적 자원으로, 개체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의미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인성(personality)으로 인식되고 있다(Kobasa, 1979; Ganellen & Blaney, 1984). 강인성 정도의 차이가 과연 개체의 건강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이를 검증하기 위한 많은 실증적 연구를 유도해 왔다. 국내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Suh(1989)의 연구를 통해 강인성 개념이 소개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강인성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바 이는 강인성 개념의 간호학적 유의성(significance)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강인성은 모든 개체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비교적 항상성을 갖는 잠재적 저항자원으로 기대되는 만큼, 건강중재 변인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간호학적 관심은 그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익히 불안이나 스트레스 개념 등이 간호현상과 관련하여 그 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처럼(Lee et al., 1992), 강인성 역시 이러한

학문적 요구를 바탕으로 많은 경험적 분석이 요구되는 간호의 주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간호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간호실무에 활용가능한 지식체의 산출에 있다고 할 때 강인성 연구도 실무적용이 가능한 강인성 관련 지식체를 축적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연구자는 되도록 자신의 연구가 불필요한 반복연구가 되지 않고 실무활용을 위한 연구의 발전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강인성 연구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시도하여 연구의 현 동향을 살피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는 한 강인성 연구의 결과들은 분산되고 연계되지 않은 상태로 산재되어 있어 의미 있는 지식체로 활용되기가 어렵다.

특정 분야의 연구 흐름에 대한 통찰은 관련 문헌의 체계적인 고찰(systematic review)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문헌고찰은 관련 분야의 연구결과들을 수집, 체계적인 분석과 종합을 시도하는 이론적 작업으로, 연구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연구결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상호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서 관심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해 준다(Kwon, 2002). 즉 연구의 흐름에 대한 mapping을 제시해줌으로서 소모적인 반복연구를 지양시키고 선행 연구들을 더욱 정련시키

* 서강정보대학 간호과 부교수

투고일 2003년 9월 4일 심사위원회 2003년 9월 8일 심사완료일 2003년 10월 30일

고 확대시킬 수 있는 후속연구의 방향을 탐색할 수 있게 한다(Lee, 1996). 강인성 연구에 있어서도 수행되는 연구의 질을 높이고 그 효용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자 자신이 당시의 연구 흐름을 민감하게 통찰하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강인성 연구들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자들간 상호 동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적 견해는 아직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일차적으로 국내에서의 강인성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국내 간호사에 의해 수행된 강인성 연구를 수집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나아가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한 탐색도 아울러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1981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연구 중 강인성에 관한 논문들을 확인한다.
- 2) 확인된 논문들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여 강인성 연구의 현황을 파악한다.
- 3) 추후 강인성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논문의 선정

본 연구의 대상 문헌은 강인성이 주요 연구변인으로 분석된 논문들을 표본으로 하였다. 대상 문헌의 확인은 일차적으로 대한간호협회에서 제공하는 학위논문 검색자료, 전남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보건연구정보센터(RICH),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문헌 검색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에서 제공하는 검색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검색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아 누락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컴퓨터 검색을 통해 확인된 자료들의 참고문헌도 함께 고찰하여, 이들 중 연구목적에 부합된 논문들을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논문 선정의 기준은 1) 1981년 이후 수행된 연구, 2) 논문 제목에 강인성이 나타난 논문, 3) 국내 간호사에 의해 연구된 논문, 4) 강인성이 간호 관련 개념으로 간호학 분야에서 분석된 논문 등이다. 상기 기준에 부합된 연구 중 학위논문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그 중 한 논문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총 48편의 논문이 확인되었으나 그 중 47편의 논문이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확인된 논문 중 분석에서 제외된 한편은 비전문 간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게재 출판사의 폐간과 원 연구자의 논문 분실로 인해 수집이 불가능하였다. 한편 연구의 주요 개념으로 강인성이 분석된 논문이라도 상기의 분석 기준에 의거하여 대상 논문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논문 제목에 강인성이라는 어휘가 사용되지 않는 논문은 본 분석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다.

2. 자료분석방법

특정 분야의 연구들을 집단 분석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대상 논문의 분석 영역을 설정하고 체계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도 별 발표 논문의 수를 5년 단위로 분류한다.
- 2) 논문의 유형 및 발표 학술지를 확인한다.
- 3) 연구의 설계 유형을 확인한다
- 4) 연구대상자의 표집 방법을 확인한다.
- 5) 강인성 측정에 사용된 도구를 확인한다.
- 6) 강인성 개념의 분석 형태를 확인한다(총합개념 및 하위개념)
- 7) 강인성 관련 개념과 관련성 검증에 사용된 분석 방법을 확인한다.

III. 연구 결과

1. 강인성 논문의 연도별 발표 현황

본 연구에서 분석된 강인성 논문은 총 47편이었다. 이를 연도 별로 분류하면 1990년 이전에 1편(2.1%), 1991년에서 1995년까지가 12편(25.6%), 1996년에서 2000년까지가 30편(63.8%), 그리고 2001년 이후에는 4편(8.5%)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연구자가 대상 논문의 수집 과정에서 기간 제한을 1981년 이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85년 이전의 논문이 단 한편도 검색되지 않았고, 또한 2001년 이후의 논문은 2002년까지 2년 동안의 논문 편수임을 감안할 때 강인성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처음 시도된 이래 1991년 이후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Number of studies by year (n=47)

year	n(%)
1986 - 1990	1 (2.1)
1991 - 1995	12 (25.6)
1996 - 2000	30 (63.8)
2001 - 2002	4 (8.5)
total	47 (100.0)

2. 논문의 유형 및 발표 학술지

발표된 논문의 유형은 학위논문이 18편(38.3%)이었으며 학술지에 게재된 비학위논문이 29편(61.7%)이었다.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중복 발표된 경우는 학위논문 분류에만 포함시켰다. 학위논문 중 석사학위 논문은 15편, 박사학위 논문은 3편이었다. 학술지에 발표된 29편의 논문 중 전문 간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15편(31.9%)으로 대한간호학회지에 6편, 성인간호학회지에 4편, 여성건강학회지와 지역사회간호학회지에 각 2편, 기본간호학회지에 1편이 발표되었다. 기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14편(29.8%)으로 중앙의학에 3편, 그리고 각 대학논문집에 11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연구 설계

발표된 논문의 연구설계 별 분류는 가능한 연구자가 각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고 연구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본 연구자가 판단하여 분류하였다. 그 결과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가 35편으로 전체 논문의 과반수 이상(74.4%)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도구 개발과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시도한 방법론적 연구가 4편(8.5%), 문헌고찰을 포함한 개념에 대한 조사연구가 3편(6.4%), 개념분석 2편(4.3%), 강인성의 의미탐색을 위한 현상학적 연구가 2편(4.3%), 그리고 강인성 개념을 이용한 이론합성 연구가 1편(2.1%)이었다. 이상 설계 별 분류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강인성 연구는 비실험적 설계에 의한 상관성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Types of research design (n=47)

research design	n(%)
correlational study	35 (74.4)
tool development/testify	4 (8.5)
literature review	3 (6.4)
concept analysis	2 (4.3)
phenomenological study	2 (4.3)
theory construction	1 (2.1)
total	47 (100.0)

4. 대상자 표집방법

표본추출이 시도되지 않았던 6편의 논문을 제외한 4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대상자 표집방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39편의 연구에서 편의표출 또는 임의표출 방법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두 편의 연구에서 의도표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편의표출이나 의도표집이 대상자 선정에 있어 모집단의 대표성보다는 표집의 용이성이나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특정 기준에 의거한 주관적 표출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대상 논문 전체가 무작위성이 결여된 비확률적 표본추출 방법을 시도

<Table 2> Type of studies and name of journals (n=47)

type	classification (n)*	n(%)
Thesis	master (15)	18 (38.3)
	doctoral (3)	
Journals nursing journal	J Korean Acad Nurs (6)	15 (31.9)
	J of Korean Acad Adult Nurs (4)	
	J Korean Women's health Nurs Acad Soc (2)	
	The J of Korean Community Nursing (2)	
	J of Korean Acad of Fund Nurs (1)	
others	The Korean Jungang Medical J (3)	14 (29.8)
	college publications(11)	
total		47 (100.0)

*() : number of studies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Subject sampling (n=41)*

sampling method	n (%)
probability sampling	0 (0.0)
non-probability sampling	41(100.0)
convenience sampling (39)	
purposive sampling (2)	

* 6 studies without sampling were excluded

5. 강인성 측정도구

연구의 특성상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9편의 논문 (Table 3 참조)을 제외한 38편의 논문에서 강인성 측정 도구를 분석한 결과 모두 6종류의 도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빈번히 사용된 도구는 Pollock(1986)의 건강관련 강인성 척도(이하 HRHS)로서 총 32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 그 외 Pollock과 Duffy(1990)의 건강관련 강인성 척도(HRHS), Park (1996)의 건강관련 강인성 척도, Kobasa, Maddi와 Kann(1982)의 단축강인성 척도(Abridged Hardiness Scale), Nowack(1990)의 인지강인성 척도(Cognitive Hardiness Scale)가 각각 1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었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2편의 논문에서는 가족 강인성 지수 (Family Hardiness Index, McCubbin, McCubbin, & Thompson, 1986)가 사용되었다<Table 5>.

강인성의 변량 측정에 가장 많이 사용된 Pollock의 HRHS는 국내에서는 Suh(1989)가 변안한 40문항의 형태와 또 이 도구를 Suh(1995)가 자신의 연구에서 다시 수정 과정을 거쳐 사용한 25문항의 축약형 HRHS의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성 측정이 이루어진 38편의 논문 중 도구의 신뢰도를 제시한 논문은 35편으로 모든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을 제시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40문항의 HRHS의 신뢰도는 $\alpha=0.61 \sim 0.87$ 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신뢰도 수준이 표집대상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보기 위해 부가적인 분석을 한 결과, 정상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16편) 신뢰도 수준은 $\alpha=0.61 \sim 0.84$ 의 범위에 있었고 환자 대상의 연구(10편)에서는 보다 높은 $\alpha=0.74 \sim 0.87$ 인 것으로 나타났다. 25문항의 축약형 HRHS를 사용한 논문(6편)은 모두 정상인을 표본으로 한 연구로서 $\alpha=0.83 \sim 0.88$ 의 신뢰도를 보여주었으며, 그 외 강인성 측정 도구 역시 모두 정상인 대상의 연구에서 사용되어 $\alpha=0.75 \sim 0.90$ 의 범주를 나타내고 있었다<Table 5>.

6. 강인성 변인의 분석 형태

애초 강인성은 통제성, 자기투입성, 도전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들이 강인성이라는 하나의 주 요인에 적재되어 총 변량의 46.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도의 상호관련성을 갖는 세 하위개념으로 통합된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Wagnild & Young, 1991). 그러나 그 후 많은 연구에서 강인성 측정을 위한 세 하위개념이 각각 다른 요인에 선택적으로 적재되어 건강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됨에 따라 아직까지 강인성의 개념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 정의는 명료하지 않은 상태이다(Hull, Treuren, & Virnelli, 1987). 때문에 분석된 변인 형태, 즉 총합변인(composite scale) 또는 하위개념(subscale)별 분석

<Table 5> Instruments used to measure hardiness & Cronbach's α (n=38)*

instrument (n)	n(%)	range of Cronbach's α
HRHS (Pollock, 1986)	32 (84.3)	
40 items (Suh Moon Ja, 1989) (26)		0.61 ~ 0.84 (n.p) / 0.74 ~ 0.87 (pt.)
25 items (Suh Yoon Ok, 1995) (6)		0.83 ~ 0.88
HRHS (Pollock & Duffy, 1990)	1 (2.6)	0.90
HRHS (Park, 1996)	1 (2.6)	0.86
AHS (Kobasa et al., 1982)	1 (2.6)	0.75
CHS (Nowack, 1990)	1 (2.6)	0.80
FHI (McCubbin et al, 1986)	2 (5.3)	0.80 ~ 0.85
total	38(100.0)	

* 9 studies in which instrument not used were excluded. n.p : normal person, pt.: patient, HRHS : Health Related Hardiness Scale, AHS : Abridged Hardiness Scale, CHS : Cognitive Hardiness Scale, FHI : Family Hardiness Index, (n) : number of studies

에 따라 변인간 관련성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강인성 연구의 또 다른 관심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에서 강인성 변인을 어떤 형태로 분석했는가는 이런 논쟁점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도를 추론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강인성의 측정 방법을 연구의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여 각 논문에서의 변인의 분석 형태를 조사하였다. 단 측정 변인의 형태에 따른 실증적 효과의 차이는 연구 목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본 연구에서 강인성의 하위개념은 통제성, 자기투입성, 도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인성 측정 시 가족강인성지수(FHI)를 사용한 2편의 연구와 또 변인간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11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머지 3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강인성 변인의 분석 형태를 조사한 결과, 총합 및 하위변인의 분석을 동시에 시도한 연구가 21편, 총합변인 분석만 시도한 경우는 10편, 그리고 하위개념만 분석한 경우는 3편으로 확인되어 국내의 강인성 연구에서는 총합 및 하위개념의 병행 측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Analysis pattern of hardiness variable (n=34)*

analysis pattern	(n=34)*
composite & subscale scores	21 (61.8)
composite scale score	10 (29.4)
subscale score	3 (8.8)

* 11 studies without statistical analysis and 2 studies used FHI were excluded

7. 강인성 관련 개념 및 분석 방법

대상 논문들 중 타 개념과의 관련성이 언급되지 않은 논문(11편)을 제외한 36편의 논문에서 강인성과의 관련성이 분석된 변인들을 확인하여 유사개념 별로 범주화하였다. 관련 변인의 추출 과정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질병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한 편의 연구에서 한 종류 이상의 관련 변인이 분석된 경우에는 각각의 변인을 해당 개념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총 27개의 변인이 강인성과의 관련성 검증에 분석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유사개념 별로 유목화한 결과, 건강행위, 스트레스, 적응, 지지개념으로의 범주화가 가능하였으며 분석 빈도가 낮아 범주화가 어려운 변인들은 기타 범주로 분류하였다<Table 7>.

강인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분석 빈도를 보인 개념 범주는 건강행위로서 총 23편의 연구에서 다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는 건강증진행위(13편), 자가간호행위(4편), 이행(2편), 폐경 관리(1편), 산전 간호(1편), 흡연 행위(1편) 등의 변인이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스트레스 개념으로 총 14편의 연구에서 스트레스(3편), 업무 스트레스(3편), 소진(2편), 그 외 스트레스 관련 증상, 통증, 가족 긴장, 불안, 신체증상, 슬픔(각 1편씩) 등의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적응 역시 강인성의 주요 관련 개념으로 총 6편의 연구에서 다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분석 변인은 심리 사회적 적응(2편)과 대처, 가족 적응, 생리 심리사회적 적응, 조직 몰입(각 1편씩)이었다. 지지 개념은 총 5편의 논문에서 사회적 지지(2편), 가족 지지(2편), 가족관리자원(1편)으로 측정되었다. 그 외

<Table 7> Hardiness-related concepts (n=36)*

concept category	variables (number of studies)
Health behavior (23)	health promotion behavior (13), self-care behavior(agency) (4) compliance (2), physical compliance index (1), prenatal care (1) menopausal management (1), smoking behavior (1)
Stress (14)	stress (4), work stress (3), burnout (2), stress-related symptom (1) pain (1), family strain (1), anxiety (1), physical symptom (1), grief (1)
Adaptation (6)	psychosocial adjustment (2), coping (1), family adaptation (1), physical-psychological-social adaptation (1), organizational commitment (1)
Support (5)	social support (2), family support (2), family resources for management (1)
Others (11)	self-efficacy (4), self-esteem (2), perceived health status (2), family value (1), gender role characteristics (1), knowledge of menopause (1)

* 11 studies without statistical analysis were excluded

자기효능감은 4편의 연구에서, 자긍심 및 자존감은 2편, 인지된 건강상태는 2편의 연구에서 분석되었고 가족 가치, 성 역할 특성 및 폐경 지식도 각각 1편의 연구에서 관련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상기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 검증에 사용된 분석 방법은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 차이검증을 위한 ANOVA, 그리고 경로분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총 31편으로 주로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유일하게 한 편의 논문에서 정중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검증이 이루어진 연구는 총 14편으로 이 중 다중회귀분석이 10편, 단계적 회귀분석이 4편의 연구에서 시도되었다. 회귀분석에서 강인성은 독립변인으로 투입되어 건강행위나 스트레스, 또는 적응의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지가 분석되었다. 3편의 연구에서 강인성 정도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하여 집단 별 흡연실태나 산전간호, 그리고 조식물입에 차이가 있는 지를 ANOVA로 분석하였다. 경로분석은 단 한 편의 연구에서 시도되어 강인성의 원인변인과 결과변인을 제시하고 있었다<Table 8>.

<Table 8> Analysis method (n=36)*

analysis method	statistics
correlation	Pearson's r coefficient (30) Canonical correlation (1)
regression	multiple regression (10) stepwise regression (4)
testing difference	ANOVA (3)
causal relationship	path analysis (1)

* 11 studies without statistical analysis were excluded
() : number of studies (multiple response)

IV. 논 의

강인성 관련 논문이 1980년대 후반에 처음 발표된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에서 강인성에 대한 간호연구의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 논문 중 시기적으로 가장 빨리 발표된 연구를 확인한 결과,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Suh(1989)의 “강인성(Hardiness)과 퇴원 후 적응상태와의 관계 분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90년대에 들어 강인성 연구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Suh의 연구가 강인성 개념에 대한 간호학적 관심을 유도하게 된 주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추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Suh(1989)의 연구는 국내 간호학자들에게 강인성 개념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분석을 통해 간호관련 개념으로서의 유용성을 시사해 준 의미 있는 논문으로서 강인성 연구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강인성 연구의 비전문 학술지에의 게재 비율은 2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9년부터 1995년까지 발표되었던 임상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논문을 분석한 Lee(1996)의 연구에서 중상의학이나 최선의학, 또는 각 대학논문집 등 비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경우가 분석 논문의 43.6%라는 보고와 비교해 볼 때 강인성 논문의 간호전문학술지의 이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생각된다. 이는 간호학회 별 분과학회가 1989년 성인간호학회지와 지역사회간호학회지의 창간을 시작으로 1990년대 초반에 모든 분과학회에서 자체 학회지를 발행함에 따라 전문학술지를 통한 논문 발표의 지면이 확장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분과학회지 창간 이후의 기간이 약 10년 정도 포함된 1981년에서 2000년까지 발표된 근로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의 비전문 간호학술지에의 게재 비율이 단 5.9%임을 감안한다면 (Kim & Yoon, 2002), 유사한 시기에 발표된 강인성 논문의 전문 간호학술지 게재수준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강인성 개념에 대한 간호학자들의 관심이 1990년 이후라고 볼 때 강인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강인성 연구의 실증적 결과들은 가능한 많은 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면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관련 지식의 확산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관심 있는 연구자들간의 학술적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강인성 연구를 위한 주요 설계유형은 비실험연구로서 그 중 상관성 연구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성인간호학회지에 실린 논문 수 330편의 분석 결과, 비실험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3.6%였다는 보고(Suh et al., 2001)와 유사하고, 기존의 특정 주제에 관한 논문 분석 연구(Lee, 1996; Kim & Yoon, 2002)에서 보고하고 있는 설계유형의 빈도와도 큰 차이가 없어, 아직까지 국내의 간호연구는 비실험설계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된 강인성

논문 중 실험적 설계에 의한 연구가 단 한 편도 없다는 것과 개념에 대한 문헌적 고찰이나 조사연구, 또는 개념 분석이 전체 연구의 10.7%(5편)를 차지하고 있음은 상기의 연구들과는 구별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발전 단계에서 실험연구는 최상위 수준의 연구로서 그 이전 단계의 연구들이 축적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때(Choi et al., 2000), 강인성 연구의 단계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지 않나 사료된다. 강인성은 생의 어느 시기에도 학습 가능하다고 제언한 Rich와 Rich(1987)의 견해에 의하면 강인성 연구에서도 실험적 중재의 가능성이 충분히 시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개념 자체가 심리적 특성의 자원으로 고려되는 만큼 특정한 중재 절차를 통해 강인성을 변량화할 수 있으리라는 연구자들의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 아닌 가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대부분의 논문에서도 강인성은 선행변인으로 처리되어 그 수준에 따른 종속변인의 변화를 추정하고자 했던 것도 연구자들의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흔히 시도되는 개념분석이나 문헌적 고찰이 타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역시 연구의 발전 단계에서 거처가는 초보적 현상으로서 강인성 개념의 의미 정착을 위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분석 논문 모두에서 연구 대상자의 선정은 비확률적 표집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확률적 표본추출은 표집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과 편견의 개입이 크다고 가정되는 만큼 모집단의 대표성을 장담할 수 없는 표집방법이다. 이러한 표본에서 얻은 통계치에 근거해 모집단을 추정하는데는 많은 제한이 있어, 자료에서 도출된 추론 및 결론을 진술할 때 연구자의 온건한 해석이 전제되어야 하고 연구결과의 일반화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Cha, 1981).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대상자 표집에 있어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대안적 방법에 대해 연구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즉 강인성 연구 역시 결과의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 방법으로 다양한 대상자들이 참여한 반복연구의 필요성이 지적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Lee, Lim & Park, 1998).

강인성 측정에 사용된 도구 중 Park(1996)의 도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외국 도구를 번안, 사용한 경우

들로서 도구에 대한 대의 의존도가 타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1996; Kim & Yoon, 2002). 그러나 이들 도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강인성 개념 그 자체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해당 개념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 유사 개념의 측정도구를 사용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타당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비단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들일지라도 국내의 다양한 대상자를 포함한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이 주어진다면 한국적 도구로의 정련화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Pollock(1986)의 HRHS는 분석 논문의 80%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반복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적 노력이 함께 수반된다면 내국인의 강인성 변량화에 적합한 한국적 도구로의 표준화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각 논문에서 강인성 측정에 사용된 각 도구의 실제적인 사용 형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원래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연구대상을 포함한 신뢰도 검증을 통해 문항 수나 척도의 변화 등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후일 표준화 작업을 위한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강인성 변인의 분석 형태를 조사한 결과 총합 및 하위 변인의 분석을 병행 시도하여 그 결과를 비교, 보고하고 있는 논문은 22편(61.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성 연구에 있어 개념의 단일성(unitarity)을 증거 해 줄 수 있는 실증적 결과가 아직 미흡하고 하위개념 별 종속변인에 대한 예측 정도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논쟁점이다(Hull et al., 1987). 이는 강인성 변인의 개념적 명료성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상태에 대한 총합변인과 하위개념의 예측 효과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 논문 중 다수의 연구에서 총합 및 하위개념이 동시 분석되어 그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음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분석 방법이 시도됐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 실증적 결과는 추후 분석변인의 형태에 따른 예측효과의 차별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주요한 자료들로서 궁극적으로 강인성 개념의 명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하위개념별 분석을 통해 추론되는 다양한 결과들은 수집된 자료로부터

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인 해석을 유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Ganellen & Blaney, 1984; Hull et al., 1987).

강인성과의 관련성이 검증된 변인들을 유사개념 별로 분류한 결과 건강행위, 스트레스, 적응, 지지 개념 등이 도출되었다. 이들 개념은 간호의 개념적 영역 분류 중 대상자 영역(client domain)과 환경 영역(environmental domain)에 속하는 개념들로서(Kim, 1983), 실제 분석에서 영역내 또는 영역간 개념들간의 관련성이 분석되고 있었다. Kim(1983)은 대상자나 환경 영역에 속하는 개념들의 영역내, 영역간 관련성 검증은 그 특성상 주로 설명적(explanation) 검증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대부분의 논문이 변인간 관련성 검증에 있어 피어슨의 상관계수나 다중회귀분석에 의존하고 있음은 이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한편 간호의 또 다른 개념적 영역인 간호활동 영역(nursing domain)은 ‘간호라는 이름으로 간호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영역으로 구체적으로는 대상자를 위한 간호중재가 제시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분석된 논문에서 이 영역에 속한 개념이 도출되지 않았음은 앞서 언급했던 실험적 연구가 부재했던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강인성 연구는 연구의 발전단계 중 서술적, 설명적 단계에 있으면서 비교적 제한된 범위의 개념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편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강인성 연구에 있어 관련 변인들의 범주가 간호의 세 영역에 걸쳐 다양화되면서 나아가 실험적 중재를 통한 실증적 분석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주어질 때 강인성 연구는 보다 발전적 단계로 업그레이드되어 실무활용에 근접할 수 있는 지식체 산출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강인성 논문을 개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강인성 연구의 현황을 살피고 추후 보다 의미 있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1986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 간호사에 의해 수행된 강인성 연구 47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강인성에 대한 논문은 1980년대 후반에 1편의 논문이 확인되었으나 1990년대 초반에 12편(25.6%),

1990년대 후반에 30편(63.8%)으로 확인되어 1990년대 이르러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2. 논문의 유형은 학위논문이 18편(38.3%)이었고 학술지 등에 발표된 비학위논문이 29편(61.7%)이었다.
3. 발표된 논문의 설계유형은 비실험설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중 상관성 연구가 35편(74.4%)을 차지하고 있었다.
4. 대상자 표집이 이루어졌던 41편의 연구 전체에서 비확률 표출법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5. 강인성 측정에 사용된 도구는 총 6종류로 이 중 Pollock(1986)의 건강관련 강인성 척도(HRHS)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4.3%).
6. 강인성 변인의 분석 형태에 있어 총합 및 하위개념 분석이 동시 시도된 연구는 21편, 총합변인 분석만 이루어진 경우는 10편, 하위개념 분석만 시도한 논문은 3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7. 강인성관련 변인은 총 27개로, 건강행위, 스트레스, 적응, 지지 및 기타 개념으로 범주화가 가능하였다. 이 중 분석 빈도가 가장 높은 개념은 건강행위 범주로서 총 23편의 논문에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스트레스(14편), 적응(6편), 지지(5편), 그리고 기타의 순이었다.
8. 사용된 통계적 분석 방법은 상관성 분석이 가장 많았고(31편), 다음으로 회귀분석(14편), ANOVA(3편), 그리고 경로분석(1편)의 순이었다.

본 연구는 강인성 논문들의 개괄적 분석에 그친 제한점은 있지만 간호관련 개념으로서 그 유용성이 기대되는 강인성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 경향을 파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분석이 강인성 연구의 발전 단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분석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강인성 연구가 실무 가능한 간호지식체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험연구와 같은 보다 실증적 설계에 의한 분석이 필요함을 제안하며, 둘째, 총합 및 하위개념별 예측효과의 크기와 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Meta 분석을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Cha, B. K. (1981). *Research methods for the*

- students of social sciences*. Seoul : Saeyeong Book Publishing Co.
- Choi, K. S., Song, M. S., Hwang, A. R., Kim, K. H., Chung, M. S., Shin, S. R., & Kim, N. C. (2000). The trend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J Korean Acad Nurs*, 30(5), 1207-1218.
- Ganellen, R. J., & Blaney, P. H. (1984). Hardiness and social support as moderators of the effects of life stress. *J personality Social Psychol*, 47(1), 153-163.
- Hull, J. G., & Treuren, V., & Virnelli, S. (1987). Hardiness and health : A critique and alternative approach. *J personality Social Psychol*, 53(3), 518-530.
- Kim, H. S. (1983). *The nature of theoretical thinking in nursing*. East Norwalk : Appleton-Century-Crofts.
- Kim, J. H. & Yoon, S. N. (2002). An analysis of studies of workers' stress conducted in Korea from 1981 to 2000. *The J Korean Community Nurs*, 13(4), 618-628.
- Kobasa, S. C. (1979). Stressful life events, personality, and health : An inquiry into hardiness. *J personality Social Psychol*, 37(1), 1-11.
- Kwon, I. S. (2002). An analysis of research o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 Korean Acad Nurs*, 32(5), 706-715.
- Lee, E. O., Lee, E. J., Lee, E. H., Chun, K. Z., Kim, J. H., Park, C. S., Lee, B. S., & Jung, M. S. (1992). Analysis of studies of anxiety and stress conducted in Korea from 1970 to 1990. *J Korean Acad Nurs*, 22(3), 272-298.
- Lee, E. O., Lim, N. Y., & Park, H. A. (1998). *Nursing-medical research and statistical analysis*. Seoul : Soomoon Publishing Co..
- Lee, M. H. (1996). Analysis of studies on work stress in clinical nurses. *J Korean Acad Adult Nurs*, 8(1), 180-200.
- Park, M. H. (1996).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Health-Related Hardiness (HR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Pollock, S. E. (1986). Human response to chronic illness : physiologic and psychosocial adaptation. *Nurs Res*, 35(2), 90-95.
- Rich, V. L., & Rich, A. R. (1987). Personality hardiness and burnout in female staff nurses. *Image J Nurs Sch*, 19(2), 63-66.
- Suh, M. J. (1989). A study on relationship of hardiness concept to adaption. *J Korean Acad Adult Nurs*, 1, 19-37.
- Suh, M. J., Kim, S. S., Song, M. S., Yee, M. S., Oh, E. G., Shin, K. R., Kim, O. S., Lee, S. J., Lee, Y. J., Oh, H. S., Jung, J. S., & Kim, C. K. (2001). An analysis on the contents and the trend of nursing research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J Korean Acad Adult Nurs*, 13(4), 571-580.
- Suh, Y. O. (1995). *A Structural model for health promoting lifestyle in middle-aged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 Wagnild, G., & Young, H. M. (1991). Another look at hardiness. *Image J Nurs Sch*, 23(4), 257-259.

- Abstract -

Analysis of Nursing Studies on Hardiness Published in Korea

Kim, Young-Ock*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atterns and trends of hardiness studies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okang Colleg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rther research. **Method** : Forty-seven hardiness studies were collected through internet searching and were reviewed by some criteria. **Result** : The results showed that hardiness studies have increased rapidly since 1990's. Eighteen studies were thesis' for degrees and others were for non-degree research studies. All studies employed the non-experimental design, particularly correlational studies. In the sampling method, all studies used non-probability sampling. Most commonly used instrument for hardiness measurement was Pollock(1986)'s HRHS. In the majority of research, hardiness was treated both as a composite measure and 3 subscales.

Hardiness-related concepts were 27 and classified into 5 categories such as health behavior, stress, adaptation, support, and others. Most common statistical technique wa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followed by regression, ANOVA, path analysis. **Conclusion** : To be utilized as practical nursing knowledge, hardiness studies should be done with more empirical analysis such as experimental research, and Meta-analysis is needed to compare the effect size and significance of composite and 3 subscales of hardiness construct.

Key words : Hardiness